

歷代 醫家說을 중심으로 살펴본 天癸에 관한 文獻研究

Study on Tiangui - according to successive physicians -

안종은 · 강정수*

1. 緒論

'天癸'라는 말은 《素問·上古天真論》의 “女子는 七歲에 腎氣가 盛해서 齒牙가 다시 나고 頭髮이 자라고, 十四歲에 天癸가 至하여 任脈이 通하고 太衝脈이 盛하여 月經이 來하게 되므로 子息을 가질 수 있으며, 二十一歲에 腎氣가 均衡이 잡혀서 眞牙가 生하고 成長이 極에 달하게 되고, 二十八歲에 筋骨이 굳어지고 頭髮이 더 이상 자라지 아니하고 身體는 盛壯하며, 三十五歲에 陽明脈이 衰해서 面色이 變하고 頭髮이 빠지기 시작하고, 四十二歲에 三陽脈이 頭上에서부터 衰해서 顏面에는 꽃다운 빛이 전부 없어지고 頭髮이 희게 되기 시작하며, 四十九歲에 任脈이 虛하고 太衝脈이 衰少해서 天癸가 竭하고 地道가 不通하게 되므로 形體가 壞하여 子息을 낳지 못하게 됩니다……”¹⁾이라는 부분에 처음 나오는 것으로

다른 篇名의 내용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단어이다.

原文의 內容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부분은 腎氣의 盛衰에 따른 사람의 年齡別 成長, 發育, 老化的 生理過程을 說明한 것으로, 天癸는 腎氣와 의 密接한 關係 下에서 인간의 生殖能力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특히, 女性의 生理를 理解함에 있어서 天癸의 重要性은 더욱 크게, 이는 天癸가 至²⁾한 然後에 비로소 女性의 生理의 特徵인 月事가 시작되어 子息을 가질 수 있고, 天癸가 竭하면 月事가 끊어져 子息을 가질 수 없게 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天癸를 月經과 同一視여기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天癸 本來의 意味와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다. 왜냐하면 女性의 生理特性上 男性과는 대별되는 經·帶·胎·産의 過程을 거침에 있어 天癸의 作用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男性에게도 또

* :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1) 帝曰 人年老而無子者 材力盡耶? 將人數然也? 岐伯曰 女子七歲腎氣盛 齒更髮長. 二七而天癸至 任脈通 太衝脈盛 月事以時下 故有子 二七腎氣平均 故眞牙生而長極 四七筋骨堅 髮長極 身體盛壯 五七陽明脈衰 面始焦 髮始墜 六七二陽脈衰于上 面皆焦 髮始白 七七任脈虛 太衝脈衰少 天癸竭 地道不通 故形壞而無子也

丈夫八歲腎氣實 髮長齒更 二八腎氣盛 天癸至 精氣溢瀉 陰陽和 故能有子 三八腎氣平均 筋骨勁強 故眞牙生而長極 四八筋

骨隆盛 肌肉滿壯 五八腎氣衰 髮墜齒枯 六八陽氣衰于上 面焦 髮鬢頹白 七八肝氣衰 筋不能動 天癸竭 精少 腎氣衰 形體皆極 八八則齒髮去

腎者主水 受五臟六腑之精而藏之 故五臟盛乃能瀉 今五臟皆衰 筋骨解墜 天癸盡矣 故髮鬢白 身體重 行步不正而無子耳.

2) “天癸至”에서의 ‘至’의 의미를 크게 ‘到達’과 ‘充足’, ‘盈滿’의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天癸는 先人에서 稟賦받아 태어남과 동시에 이르게 되나, 女子二七 男子二八 이전에는 天癸의 작용이 확인하지 못하고 腎中에 존재하므로 後者의 뜻이 더욱 《內經》의 원문과 부합한다. - 黃帝內經 研究大成 p. 1032.

한 天癸가 至하고 竭함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天癸의 意味를 해석하기 위하여 예로부터 여러 醫家들이 天癸는 月事라는 見解로부터 始作하여 精血(男精女血)·精氣·天一之陰氣, 陰精·元陰·天真·腎間動氣·腎精 中 生殖機能을 促進시키는 物質 等 다양한 意見을 主張하였으며, 오늘날에는 天癸를 現代 西洋醫學과 결부시켜 說明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天癸의 生成은 腎氣의 充盈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天癸가 至하고 竭하는 시기는 女子는 七歲, 男子는 八歲를 한 단위로 하여 女子는 二七에 天癸가 至하고 七七에 天癸가 竭하며, 男子는 二八에 天癸가 至하고 七八에 天癸가 竭한다. 男子의 경우 八八에 天癸가 竭하는 것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 醫家들도 있으며, 天癸의 至하고 竭함은 나이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醫學綱目》婦人治法通論에서는 “婦人童幼 天癸未行之間 皆屬少陰 天癸既行 皆屬厥陰 天癸既絕 乃屬太陰經也”³⁾⁴⁾라고 하여 天癸의 來하고 絶함에 따른 婦人治法을 說明하기도 하였다.

‘天癸’는 男女 모두의 成長, 發育, 生殖機能, 老化的 全 過程에 걸쳐 腎氣의 盛衰와 함께 매우 중요한 役割을 擔當하는 것으로, 이에 著者는 天癸의 概念과 生成 및 生理的 作用 等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본 論문을 작성하였다.

II. 本論

1. 天癸의 概念

1) 天癸의 語源的 意味

天癸의 ‘天’字에 대하여 《說文解字》에서는 “天 顛也 至高無上 從一大”⁵⁾라 하였으며, 注에 이르

기를 ‘天은 始를 말함이며 顛은 사람의 정수리를 말하는 것으로 높음을 의미하고, 始라는 것은 여자의 처음(女之初)으로 일어남(起)을 칭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天을 시작과 높음의 의미로 說明하고 있다. ‘癸’字에 대하여 《說文解字》에서는 “冬時水土平 可揆度也 象水從四方流入地中之形 癸承壬 象人足”⁶⁾이라 하였고, 《史記·律書》에서는 “癸之爲言 揆萬物可揆度 故曰癸”⁷⁾라 하였으며, 劉熙는 《釋名》에서 “癸 揆也 揆度而生 乃出土也”⁸⁾라 하였고, 北宋의 劉溫舒는 《素問入式運氣論奧》에서 “癸者 揆也 天命 至此 萬物 閉藏 懷妊於其下 揆然萌芽”⁹⁾라 하여 ‘癸’의 意味를 說明하고 있다. 이의 內容을 考察해 보면, 癸는 第二代의 生命이 또 開始하려고 宿根이 發生을 待期하고 있는 것이다.

‘天癸’에 對하여 諸家들이 제시한 語義를 살펴 보면, 王冰은 “癸는 壬癸를 말하는 것이니 北方水로 干의 이름이다.”¹⁰⁾라고 하였고, 張介賓은 “癸란 天의 水이니 干名이다. 干은 支의 陽으로 陽은 氣를 말하는 것이다. 癸는 壬의 偶로 偶는 陰을 말하는 것이다. 故로 天癸는 天一의 陰氣이니 氣化하여 水가 됨을 因하여 天癸라 名한 것이다.”¹¹⁾라고 하였다. 또 陳良甫는 “天은 天真의 氣를 말하고 癸는 壬癸의 水를 말하는 것인데, 壬은 陽水이고 癸는 陰水이다. 女子는 陰類이다.天真의 氣가 降하는 것을 天癸라 한다.”¹²⁾

- 6) 許慎撰 段玉裁注 : 說文解字注,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 742.
- 7) 尹暢烈 : 十干과 十二支에 대한 考察, 慶熙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8) 尹暢烈 : 十干과 十二支에 대한 考察, 慶熙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9) 尹暢烈 : 十干과 十二支에 대한 考察, 慶熙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10) 王冰 :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 4. “癸 謂壬癸 北方水 干名也.”
- 11) 張介賓 : 張氏類經, 서울, 成輔社, 1982, p. 59. “夫癸者 天之水 干名也 干者支之陽 陽所以言氣. 癸者壬之偶 偶所以言陰 故天癸者 言天一之陰氣耳 氣化爲水 因名天癸 此先聖命名之精而諸賢所未察者 基在人身 是爲元陰 亦曰元氣.”
- 12) 崔瑛 : 女科經論,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6, p. 4. “陳良甫曰 : 經云 女子二七而天癸至 人謂人眞之氣 癸謂壬癸之水 壬爲陽水 癸爲陰水 女子陰類 衝爲血海 任主胞胎 一脈流通 經血滿盈 應時而下 大眞氣降 故曰天癸.”

3) 樓英 : 醫學綱目, p. 1479.

4) 高金亮 主編 : 中醫學問答題庫, 中醫古籍出版社, 1988, p. 3.

5) 許慎撰 段玉裁注 : 說文解字注,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 1.

고 하였다. 《內經·素問 疑難問題助讀》에서는 “……壬은 陽이고 癸는 陰이다. 그러므로 天癸라고 부르는 것에 있어서 男子에게도 또한 天癸라고 칭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다. ……注云 男子 十六歲에 天壬이 至하여 生育의 理가 始作되니, 天壬은 古人이 항상 쓰던 말이다.”¹³⁾라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王冰이 癸의 의미를 壬癸로 포괄하여 해석한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壬과 癸를 陰陽 配屬에 따라 男은 陽이고 女는 陰이므로 各各 天壬과 天癸로 불려야한다는 것이다. 陳良甫가 말한 것은 王冰과 張毅之가 제시한 내용이 섞여 있는 듯 하다. 以上을 綜合해보건대, 諸家들은 天癸의 意味를 天眞의 氣, 水와 연결시켜 인식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2) 天癸에 대한 歷代 醫家들의 認識

(1) 月事라는 見解

天癸를 月事로 보는 見解는 《素問·上古天眞論》 “女子……二七而天癸至 任脈通 太衝脈盛 月事以時下 故有子”의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天癸가 至하면 月事が 時下한다는 내용에 국한된 설명으로, 後代 醫家들에 의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다.

王冰은 《素問·上古天眞論》 “二七而天癸至 任脈通 太衝脈盛 月事以時下 故有子”의 注에서 “……腎氣全盛 衝任流通 經血漸盛 應時而下 天眞之氣降 與之從事 故云天癸也”¹⁴⁾ 즉, ‘腎氣가 완전히 盛하여 衝任이 流通되면 經血이 점차 盛하여 저서 때에 맞추어 下하고 天眞의 氣가 降하여 이와 더불어 月事が 있게 되니 故로 天癸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馬蒔는 “按王

冰謂天癸爲月事者非 蓋男女之精 皆可以天癸稱 今王註以女子之天癸爲血 則男子之天癸亦爲血耶.”¹⁵⁾라 하여 ‘王冰이 天癸를 月事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男女의 精 모두를 天癸라 칭할 수 있는데 王冰이 女子의 天癸를 血이라 한다면 男子의 天癸 또한 血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함으로써 王冰의 注를 반박하였다.

여기서 잠시 살펴볼 것은 王冰이 “丈夫 二八腎氣盛 天癸至 精氣溢瀉”¹⁶⁾ 부분의 注에서 “男女有陰陽之質不同 天癸則精血之形亦異 陰靜海滿而去血 陽動應合而泄精 二者通和 故能有子”¹⁷⁾라 하여 ‘男女에 陰陽의 質이 不同함이 있으니 天癸는 精血의 形이 또한 다르다. 陰은 靜하여 海가 가득 차면 血이 去하며, 陽은 動하여 合하면 泄精하여 二者가 通和하므로 자식을 갖게 된다’고 한 것이다. 이는 天癸가 男女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으로 王冰이 단순히 天癸가 月事라고만 주장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張介賓도 “如王氏以精血爲天癸 蓋以經文言 女子之血 男子之精 皆隨天癸而至故也 此雖未得其眞 而其義猶不相遠”¹⁸⁾이라 하였는데 이 부분의 王氏는 王冰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王冰은 天癸를 月事が 아닌 精血로 본 것임을 알 수 있다.

《婦人大全良方》에서는 “岐伯曰 女子七歲腎氣盛 齒更髮長 二七而天癸至 任脈通 太衝脈盛 月事以時下 天謂天眞之氣降 癸謂壬癸 水名 故云天癸也 然衝爲血海 任主胞胎 腎氣全盛 二脈流通 經血漸盈 應時而下 所以謂之月事者 平和之氣 常以三旬一見 以像月盈則虧也”¹⁹⁾라 하여 天癸가 月經이라 해석하였고, 《濟陰綱目》²⁰⁾에서는 《婦人大全良方》을 인용하여 天癸가 月經이라는 해석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女科經論》에서도 陳良甫의 말을 인용하여 “經云女子二七而天癸至 ……衝爲血海 任主胞胎 二脈流通 經血漸盈 應時而下

13) 張毅之 : 《內經·素問 疑難問題助讀》,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3, p. 7.

“阮元 癸之言揆也. 禮記 月令 其日壬癸 注 癸 揆也 揆度而生乃出土地. 釋名 釋天 癸 爲壬癸北方水干名也. …… 然中有壬. 子 癸三氣. 壬陽癸陰 女子陰也 故曰 天癸 若男子亦稱天癸 則悖于理. 漢書 律曆志 懷妊于壬 則男子之精 當云壬水 路史 發揮四 夢齡妄篇 注云 男子十六天壬至. 始有生育之理 天壬 古人恒言也.”

14) 王冰 : 前掲書, p. 4.

15) 馬蒔 :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 7.

16) 王冰 : 前掲書, p. 5.

17) 王冰 : 前掲書, p. 5.

18) 張介賓 : 張氏類經, 서울, 成輔社, 1982, p. 61.

19) 陳自明 : 婦人大全良方, 人民衛生出版社, 1985, p. 10.

20) 武之望 : 濟陰綱目, 一中社, 1992, p. 1.

天真氣降 故曰天癸 常以三旬一見 以像月盈則虧 不失基期 故名曰月信”²¹⁾이라 하였다.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羅氏²²⁾는 《中醫婦科學》에서 以上에서 陳良甫가 주장한 내용을 제시 하면서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天癸를 月經으로 誤認하게 만든 根本으로, 이 말은 틀린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男子는 月經이 없으나 天癸는 있는 것으로 보아 天癸와 月經은 같지 않음이 분명하다”고 하여 天癸가 月事라는 見解를 反駁하였다.

(2) 精血(男精女血)이라는 見解

天癸를 精血로 보는 見解는 天癸가 月事라는 認識에서 한 걸음 나아가 天癸가 男女 모두에게 至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天癸를 女子 뿐만 아니라 男子에 대한 관점에서도 해석한 것이다. 吳氏는 “癸 腎水也 是爲男精女血 天真所降也 故曰天癸”²³⁾라 하였고, 高氏는 “天癸者 男精女血 天一所生之癸水也……男之天癸 精也 天癸竭 則精少”²⁴⁾라 하여 天癸가 男精女血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또한 張介賓 等에 의해 비판을 받았는데, 張氏가 이르기를 “愚按 天癸之義 諸家俱即以精血爲解 然詳玩本篇謂女子二七天癸至 月事以時下 男子二八天癸至 精氣溢寫 是皆天癸在先而後精血繼之 分明先至後至 各有其義 焉得謂天癸即精血 精血即天癸 本末混淆 殊失之矣”²⁵⁾라 하여 天癸가 먼저 있는 후에 精血이 그것을 잇는 것이니, 먼저 이르고 후에 이르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여 天癸와 精血의 先後를 물어 天癸와 精血이 같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3) 精氣라는 見解

楊上善은 “天癸, 精氣也”²⁶⁾라 하여 天癸를 精氣로 보았는데 李氏²⁷⁾는 여기서의 精氣를 男女의

腎精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였다.

(4) 天一之陰氣, 陰精이라는 見解

馬蒔는 “天癸者 陰精也 蓋腎屬水 癸亦屬水 由先天之氣畜極而生 故謂陰精爲天癸也.”²⁸⁾, “二八腎氣已盛 天癸始至 天癸者陽精也 蓋男女之精 皆主腎水 故皆可稱爲天癸也 惟精氣溢瀉 故陰陽之精一和 而遂能有子矣”²⁹⁾라 하여 先天의 氣가 蓄積되어 生하므로 陰精이 天癸가 되는 것이라 하였다. 단, 男子의 天癸를 설명할 때에는 陽精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나, 男女의 精은 모두 腎水가 主하므로 天癸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張도 “故天癸者 言天一之陰氣耳 氣化爲水 因名天癸 此先聖命名之精而諸賢所未察者 其在人身 是謂元陰 亦曰元氣 人之未生 則此氣蘊於父母 是爲先天之元氣 人之既生 則此氣化於吾身 是爲後天之元氣”³⁰⁾라 하여 “天癸는 天一의 陰氣를 말함인데 氣化하여 水가 됨을 因하여 天癸라 名한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元陰이라 하고 또한 元氣라 한다”고 하였다. 《素問注釋滙粹》³¹⁾에서 이르기를 “여기서의 ‘天一之陰氣’는 馬蒔가 말한 ‘天癸者 陰精也’에서의 ‘陰精’과 같은 개념이다. 이러한 陰精은 先天之精氣로 말미암아 腎氣에서 化生된 것으로 馬蒔는 ‘癸亦屬水 由先天之氣畜極而生’이라 하였다. 또 薛雪은 ‘天癸者 非精非血 乃天一之眞’이라 하였는데, ‘天一之眞’은 卽 ‘先天眞水’이다. 古人들은 水가 萬物의 根源이라 여겼고 萬物의 生함은 모두 水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다. 一은 水의 生數로 水는 先天에 本源하므로 ‘天一’이라 하였다”라고 하였다.

이 외에 張志聰은 “天癸 天一所生之癸水也”³²⁾, “天癸者 天一所生之精也 是以男子天癸至而精氣溢瀉 腎之精 化赤爲血溢於衝任 生髭鬚 女子天癸至而月事以時下 故精血皆謂之天癸也”³³⁾라고 하여

21) 蒔墳 : 女科經論.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6. p. 4.

22) 羅元愷 : 中醫婦科學. 人民衛生出版社. 1988. p. 19.

23) 吳崐 : 內經素問吳注. 山東科學技術出版社. 1984. p. 3.

24) 高士宗 : 黃帝素問直解.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2. p. 3.

25) 張介賓 : 前揭書. p. 59.

26) 楊上善 : 黃帝素問大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 23.

27) 李國卿 : 素問疑義. 黑龍江人民出版社. 1989. p. 6.

28) 馬蒔 : 前揭書. p. 7.

29) 馬蒔 : 前揭書. p. 8.

30) 張介賓 : 前揭書. p. 59.

31) 程立德 : 素問注釋滙粹. 人民衛生出版社. 1982. pp. 10~11.

32) 張志聰 : 新編素問集註.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 6.

天癸가 '天一所生之癸水'라고 설명하였다.

(5) 元陰이라는 見解

張³⁴⁾은 “元陰者 既無形之水 以長以立 天癸是也 強弱系之 故亦曰元精”라 하여 元陰은 無形의 水로 長하고 立하게 하니 天癸가 元陰이라 하였고, 楊³⁵⁾은 “天癸 又稱元陰 人在初生的時候 此氣尙微 必須發育至一定階段始能充實 ……”이라 하여 天癸를 또한 元陰이라 稱한다고 하였다.

(6) 天真이라는 見解

趙有臣은 《天癸新探》³⁶⁾에서 “《上古天真論》을 조사해 보면 '天真'이라는 두 글자가 없으나, 다른 篇名의 내용을 보면, '天真'이라는 두 글자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天癸'는 '天真'을 誤認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天癸'를 '天真'의 誤認이라고 하였다.

(7) 腎間動氣로 보는 見解

天癸를 腎間動氣로 본 경우도 있는데 《婦科基礎理論》³⁷⁾에서는 “女子一七而腎氣盛 謂腎間動氣盛也 二七而天癸至 謂先天天癸水中之動氣 至于女子胞中也” (《女科證治約旨·經候門》)(《醫宗金監·婦科心法要訣》)라고 하였으며, 《素問疑識》³⁸⁾에서는 “《金匱要略》謂：先天天癸, 謂腎間之動氣.”라 하여 天癸를 腎間動氣라고 하였다.

(8) 腎精 中 成長發育·生殖機能을 促進시키는 物質로 보는 見解

최근 대부분의 天癸를 언급한 책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내용으로, “天癸는 男女 모두에게 있는 것으로 人體의 生長, 發育 및 生殖을 促進시키는 일종의 陰精이다.”³⁹⁾라는 문장으로 대표

할 수 있다. 《黃帝內經 研究大成》⁴⁰⁾에서는 “天癸의 直接的 生理作用은 生殖機能을 促進시키는 것으로, 1964년 출판된 全國中醫學院試用教材 《內經講義》의 '天癸는 腎臟所生의 一種의 生殖機能을 촉진시키는 物質이다'라는 것으로부터 1984년 판의 全國教材 《內經講義》의 '天癸는 腎精 中 生殖機能을 促進시키는 作用을 갖는 一種의 物質이다'까지의 내용이 모두 기본적으로 같다”고 하였다. 이 같은 내용은 “天癸는 生殖機能을 促進시키는 物質이다.”⁴¹⁾, “天癸는 月經과 精液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一種의 男精女血의 生産과 再生能力을 促進시켜주는 物質이다.”⁴²⁾등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內經》⁴³⁾에서는 “天癸는 腎精 中 生殖機能을 促進시키는 作用을 하는 物質이다.”라고 하였으며, 《婦產科學》⁴⁴⁾에서는 “天癸는 生長發育을 하게 하는 물질이다.”라고 하였다. 《中醫學問答》⁴⁵⁾에서는 “發育이 靑春期에 이르러 腎의 精氣가 더욱 充盛하게 되면 腎氣能을 成熟시키는 物質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것을 天癸라 이른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男子는 精子를 만들 수 있고 女子는 일정시기마다 排卵을 始作해서 月經을 하게 되며, 性機能이 점차 成熟하여져서 生殖能力을 갖추게 된다.” “天癸는 腎氣充盛할 때 生産되며, 生殖機能發育을 하게 하는 물질로 男女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였다. 王⁴⁶⁾은 “天癸는 腎精에서 化生한 것으로 發育과 生殖機能을 촉진시키는 물질이다”라고 하였으며, 以上에서 열거한 以外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해석에 공감하고 있음을 여러 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天癸를 物質이 아닌 生殖機能으로 해석한 이도 있었으나 天癸가 至한 후에 자식을 가질 수 있다

7.

40) 王洪圖 總主編：黃帝內經 研究大成, 北京出版社, 1994. p. 1031.

41) 黃帝內經素問校釋, 一社, p. 9.

42) 余育元：女科要旨, 福建科學技術出版社, 1982. p. 7.

43) 內經, 人民衛生出版社, p. 566.

44) 婦產科學, 上海中醫學院編, p. 15.

45) 楊醫亞：中醫學問答, 人民衛生出版社, 1985. pp. 18~19.

46) 王琦外：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成輔社, 1983. p. 4.

33) 張志聰：前揭書, p. 8.

34) 張介賓：衆岳全書 傳忠錄,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 19.

35) 楊維傑：黃帝內經素問譯解, 台聯國風出版社, p. 5.

36) 李國卿：前揭書, pp. 6~7.

37) 張奇義：婦科基礎理論,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14.

38) 李國頌：前揭書, p. 7.

39) 高金亮 主編：中醫學問答題庫, 中醫古籍出版社, 1988. p.

고 하였으므로, 天癸와 生殖機能은 因果關係로 같은 뜻으로 해석할 수 없음을 다음의 인용문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대부분의 醫家들이 天癸를 物質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는데, 《吉林中醫藥》 1989年 第6期에 기재된 《天癸釋義之我見》에서는 天癸를 인체의 生殖機能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天癸와 生殖機能은 因果關係로 만약 天癸를 生殖機能이라 한다면 《內經》에서 어찌 天癸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하였겠는가.”⁴⁷⁾

天癸가 腎精 中 成長發育과 生殖機能을 促進시키는 物質이라는 개념은 위의 1)에서 7)까지 열거한 月事라는 견해부터 精血, 精氣, 天一之陰氣, 陰精, 元陰, 天真, 腎間動氣 등의 여러 견해들을 거쳐 얻어진 결과로, 종합적이며 현실과 가장 부합되는 개념이라 생각된다.

(9) 內分泌系統의 物質로 보는 見解

최근에는 天癸를 西洋醫學의 觀點에서 해석해 보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天癸를 內分泌領域과 연관시켜 언급한 것들이 많다. 이에 金등⁴⁸⁾은 과거로부터 이루어져온 天癸가 난소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또는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FSH나 LH에 해당된다는 학설을 부정하면서, “天癸가 내분비물질로 妊娠과 月經에 필수적이며 男女에 모두 존재한다고 할 때, 지금까지 관찰된 내분비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GnRH (황체형성호르몬 유리호르몬)과 유사하다고 생각된다.”라고 결론 내렸다.

2. 天癸의 生成

1) 天癸의 生成過程

天癸는 腎氣作用의 결과로 생산되는 것으로, 腎中精氣가 一定 정도로 充盛했을 때 발생된다.

天癸의 생성과정에 대하여 張은 “人之未生 則此氣蘊於父母 是爲先天之元氣 人之既生 則此氣化

於吾身 是爲後天之元氣 第氣之初生 眞陰甚微 及其既盛 精血乃旺 故女必二七 男必二八而後天癸至 天癸既至⁴⁹⁾”라 하여 태어나기 전에 父母에게 쌓여 있던 先天의 元氣는 태어나면서 자신의 몸에 氣化하여 後天의 元氣가 되는데,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나, 후천적으로 점차 왕성해져서 女子는 二七 男子는 二八이 되면 天癸가 至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天癸는 先天에서 稟賦받아 腎中精氣의 充盛에 의해 생성되며, 後天的으로 脾胃水穀精氣의 營養에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天癸가 至하고 竭하는 時期

《黃帝內經 素問·上古天真論》에서 “女子 七歲腎氣盛 齒更髮長 二七而天癸至 任脈通 太衝脈盛 月事以時下 故有子……七七任脈虛 太衝脈衰少 天癸竭 地道不通 故形壞而無子也. 丈夫 八歲腎氣實 髮長齒更 二八腎氣盛 天癸至 精氣溢瀉 陰陽和 故能有子……七八肝氣衰 筋不能動 天癸竭 精少 腎氣衰 形體皆極 八八則齒髮去.”라 하여 女子는 七數를 단위로 하여 二七에 天癸가 至하고 七七에 天癸가 竭하며, 男子는 八數를 단위로 하여 二八에 天癸가 至하고 七八에 天癸가 竭한다고 하였다.

女子는 陰에 屬하는데 陽數인 七數를 주기로 나아가고 男子는 陽에 屬하는데 陰數인 八數를 주기로 나아간다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張⁵⁰⁾은 “七爲少陽之數 女本陰體而得陽數者陰中有陽也...愚按 男子屬陽 當合陽數 女子屬陰 當合陰數 而今女反合七 男反合八何也 蓋天地萬物之道 惟陰陽二氣而已 陰陽作合 原不相離 所以陽中必有陰 陰中必有陽 儒家謂之互根 道家謂之顛倒 皆所以發明此理也”라 하여 陽中에 陰이 있고 陰中에 陽이 있는 陰陽 互根의 이치로 설명하였다.

高⁵¹⁾는 “女子起于七歲者 偶得奇數 陰中有陽也 故女子七歲 腎氣始盛 男子起于八歲者 奇得偶數 陽

47) 王洪圖 總主編 : 黃帝內經 研究大成, 北京出版社, 1994. pp. 1031~1032.

48) 金恩基 外2人 : 月經의 開始의 閉止에 關與하는 天癸의 東西醫學의 考察, 대한한의학회지 제17권 제2호.

49) 張介賓 : 前掲書, p. 59.

50) 張介賓 : 前掲書, pp. 58~59.

51) 高士宗 : 前掲書, pp. 3~4.

中有陰也”라 하여 張介賓과 뜻을 같이 하였으며, 張志聰⁵²⁾은 “七爲少陽之數 女本陰體而得陽數者 陰中有陽也 八爲少陰之數 男本陽體而得陰數者 陽中有陰也 按陰陽之道 孤陽不生 獨陰不長 陰中有陽 陽中有陰 是以天一生水 地二生火 離爲女 坎爲男 皆陰陽互換之道 故女得陽數而男得陰數也.”라 하였다. 또 相互生化의 원리로 이를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楠⁵³⁾은 “夫陰陽根于太極 故二氣流行 互相生化 陰得陽而生 陽得陰而長 長極則衰 自然之理也. 七者 少陽之數 女子屬陰 得陽而生...八者 少陰之數也 男子屬陽 得陰而長”이라 하였다.

또한 女子는 七七에 天癸가 竭하고 男子는 七八에 天癸가 竭하는 것에 대하여 程⁵⁴⁾은 “‘天癸竭 精少 腎氣衰 形體皆極’의 구절은 원래 七八의 아래에 있어야 한다. 丹波元簡 云 ‘推上下文 天癸竭 云云 四句, 似宜移于八八下, 恐是錯出, 然前注無敢言極者, 不能無疑’이라 하였으니, 上文에 근거할 때 女子의 天癸竭이 七七에 있으므로, 男子의 天癸竭은 八八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生長發育老衰의 客觀實際狀況과 符合하게 된다. 故로 이 12字는 七八肝氣衰 筋不能動 의 구절 아래로 옮겨야 한다.”고 하여 《素問 上古天真論》原文의 순서를 일부 수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문구를 수정하면 다음과 같다. “丈夫……七八肝氣衰 筋不能動 八八則 天癸竭 精少 腎氣衰 形體皆極 齒髮去” 天癸가 竭하여 精少하게 되는 시기를 생각해 볼 때 원문보다 수정한 내용이 더 적절할 것 같다.

3) 天癸가 至하는데 關與하는 要因

《內經》에서 “女子... 二七而天癸至 任脈通 太衝脈盛 月事以時下 故有子 …… 丈夫 ... 二八腎氣盛 天癸至 精氣溢瀉 陰陽和 故能有子……”라고 하였지만, 天癸가 至하는 것은 女子는 十四歲, 男子는 十六歲라는 나이만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因子들이 작용한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天

癸의 생성과정에 있어서 父母로부터 받는 先天의 元氣와 後天의인 水穀之氣의 營養이다. 이 두 가지 요소 중 어느 한 가지라도 天癸의 생성과정에 있어서 원활하게 작용하지 못한다면, 天癸가 때에 맞게 至하지 못하게 된다. 그 외의 요소들은 女子의 경우 天癸가 至한 후에 月事가 生한다고 하였으므로 初經 年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다. 閔⁵⁵⁾은 “初經의 時期는 문화의 정도, 기후, 생활환경, 체질, 영양, 종족, 유전 등에 의하여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더운 지방, 따뜻한 지방은 추운 지방에 비하여 初經을 하는 年齡이 어려서 열대지방은 8~9세, 한대지방에서는 18세라고 한다.”고 하여 初經의 時期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初經의 時期와 天癸가 至하는 시기가 일치한다고 했을 때⁵⁶⁾, 天癸가 至하는 時期는 初經의 시기에 관여하는 以上の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氣候와 天癸의 관계에 있어서 張⁵⁷⁾은 “至人之發育, 有寒, 溫 熱 三帶之別, 此云二七與二八 言溫帶人民之體氣”라 하여, 《素問》에 나타난 二七과 二八의 숫자는 溫帶地方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하였다. 단, 寒帶나 熱帶地方에서는 과연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언급이 없는 점이 아쉽다.

3. 天癸의 生理的 作用

天癸는 人體의 生長發育과 生殖機能을 성숙시키는 작용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天癸가 至하고 竭함에 따라 人體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생리적 작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生殖機能의 促進·維持

55) 閔庚善 : 初經이 體格과 體質에 미치는 影響. 대구한의과대학 논문집, 1983.

56) 羅元愷 : 中醫婦科學, 人民衛生出版社, 1998, p. 19. “婦女の 天癸와 月經은 同時에 至止한다”

57) 張景之 : 《內經·素問》疑難問題助讀,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3, p. 7.

52) 張志聰 : 前掲書, pp. 6~7.

53) 楠憲谷 : 靈素節注類編,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p. 6.

54) 程士德 : 前掲書, p. 13.

天癸의 가장 중요한 생리작용은 女子의 月事와 男子의 精氣溢瀉에 관여하는 것으로, 生殖機能의 有無는 天癸가 至하고 竭함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天癸의 生理的 作用을 《黃帝內經素問今釋》⁵⁸⁾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腎精이 人體生殖의 生理에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모두 天癸의 作用 下에 나타난다. 天癸는 腎氣가 充盛하면 이르는 일종의 產物로 그 주요 效能은 사람의 生殖機能을 促進시키고 維持시키는 것이다. 天癸가 人體에 있어서 至하고 竭하는 生理規律은 成人의 生殖年齡에 따라 이루어진다. 유년시기에는 腎氣가 아직 充盛하지 못하여 天癸가 發育成熟하지 못하므로 生殖能力이 없다. 청춘기에 들어서면 腎氣가 계속 充盛해져서 天癸가 점차 發育成熟하게 되므로 《素問·上古天真論》에서 ‘在女子 月事而時下 故有子 在男子 精氣溢瀉 陰陽和 故能有子’라 하였다. 이처럼 生殖年齡에 이르면 生殖能力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生殖能力은 天癸의 存在 下에 이루어지며 腎氣가 점차 衰해감에 따라 天癸가 점차 竭하게 되고 生殖能力도 또한 喪失하게 된다. 天癸는 사람의 生殖方面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天癸의 주요 效能은 사람의 生殖機能을 促進시키고 維持시키는 것이다.

《黃帝內經素問譯釋》에서도 “天癸의 成熟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女子에 있어서는 月經이 있고 男子에 있어서는 精을 泄하는 것이다.”⁵⁹⁾ 라고 하였고, 《婦產科學》에서는 天癸와 女子의 月經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女子의 一生동안 發育過程에 있어서 天癸의 發生은 중요한 단계로 天癸가 만들어지는 것은 정상적인 月經週期와 生殖機能準備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 된다. 《內經》‘女子七歲腎氣盛 齒更髮長 二七而天癸至 任脈通 太衝脈盛 月事以時下 ……七七任脈虛 太衝脈衰少 天癸竭 地道不通 故形壞而無子也.’ 이 문단은 婦女의 月經과 胎孕은 天癸의 發

生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女子七歲以後에 腎氣가 作用을 始作하면 女性生殖器官이 發育하기 시작하고 十四歲前後에 天癸가 作用을 시작하면 衝脈이 充盈해지고 任脈이 流通하여 月經을 하게 되는 것이다.⁶⁰⁾”

이처럼 天癸는 생식기능에 관계하므로 天癸가 至하면 여자는 月事以時下하고 남자는 精氣溢瀉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고, 天癸가 竭하게 되면 女子는 月經이 斷絶되고, 男子는 精少하여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天癸의 생리적 작용에 덧붙여 天癸가 性慾에 관계한다는 說이 있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王孟英은 天癸와 性慾이 관계가 있다고 여겨서 天癸가 이르면 欲念이 生하고 天癸가 竭하면 欲念에 사라진다 하였다. 그가 말하기를 : ‘孩提能悲能喜 能怒能思 而絶無欲念 其有情竇早開者, 亦在腎氣將盛, 天癸將至之年 可見腎氣未盛, 癸水未足 則不生欲念也 如腎氣衰 則癸水絶 則欲念自除矣’라 하여 天癸와 사람의 性慾, 情慾 및 生殖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⁶¹⁾ 이와 유사한 내용이 《張山雷醫集》⁶²⁾에서도 보이는데, “蓋人身五臟 惟腎生最先, 而腎足最遲, 腎衰獨早. 故孩提能悲能喜 能怒能思 而絶無欲念 其有情竇早開者, 亦在腎氣將盛, 天癸將至之年 可見腎氣未盛, 癸水未足 則不生欲念也”라 하여, 아이들은 일반적인 감정을 모두 가지고 있으나, 天癸가 이르지 않았을 때에는 性慾을 느끼지 못함을 예로 들어, 天癸가 性慾과 관계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2) 生殖器官 및 人體의 發育促進

天癸는 生殖機能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生殖器官 및 人體의 成長·發達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므로, 만약 天癸가 不足하게 되면 乳房發育이나 乳汁의 分泌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며, 발육상 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대하여 《黃帝內經 研究大成》에서는,

58) 王琦 : 前掲書. p. 624.

59) 南京中醫學院醫經教研組 編者 : 黃帝內經素問譯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3. p. 5.

60) 婦產科學. 上海中醫學院編. p. 15.

61) 王琦 : 前掲書. p. 625.

62) 張山雷 : 前掲書. p. 113.

“여자가 사춘기에 들어서면, 월경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점차 어깨·등·엉덩이 부위가 풍만해지고, 乳房이 隆起되며, 陰毛·腋毛가 생성되는 등 여성의 특징이 나타나며, 남자는 二八 이후에 精氣溢瀉 뿐만 아니라 점차 수염·腋毛·陰毛 등이 나타나고 陰莖이 增大되며, 結喉가 突起되고, 음성이 낮아지게 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표현들은 天癸와 腎氣 및 衝任 等 臟腑와 經脈의 공동작용의 결과이다.”⁶³⁾라고 하였다.

박⁶⁴⁾ 등의 논문에서 보면, 이미 月經을 시작한 학생과 아직 月經을 시작하지 않은 같은 나이의 학생을 비교해 볼 때, 이미 月經을 하고 있는 학생의 신장과 체중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天癸가 빨리 至하여 月事가 시작된 경우가 身體的 發達도 순조로움을 알 수 있다. 또한 初經의 나이가 빠를수록 성장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II. 結論

天癸의 概念, 生成, 生理的 作用에 대하여 《黃帝內經》의 註釋書와 婦人科 書籍 等 여러 文獻을 考察해 본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을 수 있었다.

1. 天癸에 대한 概念으로 月事, 精血, 精氣, 天一之陰氣, 陰精, 元陰, 天真, 內分泌系統의 物質 등 다양한 견해가 있어 왔는데, 腎精 中 生殖機能을 促進시키는 物質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서양의학적 관점으로 볼 때 天癸는 GnRH(황체형성호르몬 유리호르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 天癸는 출생하기 前 부모에게 쌓여 있던 先天의 元氣를 태어날 때 稟賦받은 후, 後天的 營

養에 의지하여 生成되며, 腎中精氣의 充盛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3. 天癸의 主된 生理的 作用은 生殖機能을 促進시키는 것으로, 女子의 月事와 男子의 精氣溢瀉, 性慾 等에 關係하며, 그 外에 人體의 成長發育에도 영향을 미친다.

= Abstract =

Study on *Tiangui* -according to successive physicians-

An. Jong-Eun · Kang, Jung-Soo

Dep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Taejon Univ., Taejon, Korea

In this paper, *tiangui* was considered in its conception, generation and physiological function according to successive physician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

1. Over the years, there have been many ideas about *tiangui*.

These days, it is proper that *tiangui* be thought of as some substance which is in *shenjing* and which promotes generative function.

According to current endocrinologic view, *tiangui* is equivalent to GnRH.

2. Before birth, a parent's energy is inherited to the embryo and after birth, that energy becomes *tiangui* which is sustained by taking food and nutrition.

Tiangui is especially related to *shenjing*.

3. The most important physiological function of *tiangui* is the promotion of generative function. So it is related to menstruation and ejaculation.

Secondly, *tiangui* is also concerned with human's growth and development.

Key words : *tiangui*, *shenjing*

63) 王洪圖 總主編 : 前掲書, p. 1031.

64) 박남미 외 2인 : 韓日에 있어서 初經과 性周期에 관한 研究. 공주대 논문집, 1990.

參考文獻

1. 許慎撰, 段玉裁注 : 說文解字注, 서울, 大星文化社, 1990.
2. 尹暢烈 : 十干과 十二支에 대한 考察,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3. 王冰 :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4. 張介賓 : 張氏類經, 서울, 成輔社, 1982.
5. 蕭埏 : 女科經論, 江蘇省,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6.
6. 張毅之 : 《內經·素問》疑難問題助讀,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3.
7. 馬蒔 :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서울, 大星文化社, 1994.
8. 羅元愷 : 中醫婦科學, 人民衛生出版社, 1988.
9. 吳 崐 : 內經素問吳注, 山東省, 山東科學技術出版社, 1984.
10. 高士宗 : 黃帝素問直解,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2.
11. 楊上善 : 黃帝素問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12. 李國卿 : 素問疑識, 黑龍江人民出版社, 1989.
13. 程士德 : 素問注釋滙粹, 人民衛生出版社, 1982.
14. 張志聰 : 新編素問集註, 서울, 大星文化社, 1994.
15. 張介賓 : 景岳全書 傳忠錄,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6. 楊維傑 : 黃帝內經素問譯解, 台聯國風出版社.
17. 張奇文 : 婦科基礎理論, 人民衛生出版社, 1995.
18. 黃帝內經素問校釋, 一中社.
19. 余育元 : 女科要旨, 福建科學技術出版社, 1982.
20. 內經, 人民衛生出版社.
21. 上海中醫學院編 : 婦產科學.
22. 楊醫亞 : 中醫學問答, 人民衛生出版社, 1985.
23. 王琦外 :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成輔社, 1983.
24. 金恩基 外2人 : 月經의 開始와 閉止에 關與하는 天癸의 東西醫學的 考察, 대한한의학회지 제17권 제2호.
25. 楠虛谷 : 靈素節注類編,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26. 閔庚善 : 初經이 體格과 體質에 미치는 影響, 대구한의과대학 논문집, 1983.
27. 南京中醫學院醫經教研組 編著 : 黃帝內經素問譯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8. 박남미 外 2인 : 韓日에 있어서 初經과 性周期에 관한 研究, 공주대 논문집, 1990.
29. 陳自明 : 婦人大全良方, 人民衛生出版社, 1985.
30. 武之望 : 濟陰綱目, 一中社, 1992.
31. 高金亮 主編 : 中醫學問答題庫, 中醫古籍出版社, 1988.
32. 王洪圖 總主編 : 黃帝內經 研究大成, 北京出版社, 1994.
33. 樓英 : 醫學綱目.